觀燈歌

[해제]

종래부터 <관등가觀燈歌>라 하면 작자와 연대 미상인 조선시대 가사로, 정월부터 5월까지의 풍속을 노래하며, 임을 잃은 여인의 슬픔을 읊은 월령체(月令體)의 노래로 알려져 왔다. 이는 조선 영조 때에 김천택(金天澤)이 편찬한 시조집 청구영언(靑丘永言) 에 전하여 영조시대의 여성가사의 일종이라 하겠다. 본 항에서 소개하는 <관등가>는 이미 주해한 <거사가> 등과 함께 조선문학전집 제2권 가사집(歌詞集) (상)에 전하는 작품으로 그 이본의 하나이다. 필사자와 필사 연대가 밝혀 있지 않으나 사설의 표기 형태로 보아 비교적 근대에 불러진 청구영언 소전의 이본으로 판단된다. 5월령 사설의 일부를 들어 표기의 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높고높게 그네매고 한번굴러 앞이높고 두번굴러 뒤히높하 鞦韆하며 노니는데. 가사집 에서 놉고놉게 그늬ᄆᆡ고 ᄒᆞᆫ번굴너 압히놉고 두번굴너 뒤히놉하 鞦韆ᄒᆞ며 노니ᄂᆞᆫ데. 청구영언 에서<달거리>, 또는 <사친가(思親歌)> 등 달거리로 읊은 우리나라 월령체 가사는 대부분이 1년 열 두 달의 노래임에 대하여, 이는 1월령부터 5월령까지 단 다섯 달의 노래 구성인 점이 유별나다. 따라서 각 월령의 내용은 각각 "正月 上元日에, 二月 淸明日에, 三月 三日날에, 四月 初八日에, 五月 端午日에" 등으로 시작하였으되, 그 마무리는 각각 "우리님은 어대가고 모르는고"라는 사설의 반복을 취하여 임을 여읜 여인의 술회가 간절하게 느껴진다. 때문에 이를 흔히 월령상사가(月令相思歌)라고도 이른다. 또한, 노래 전편은 총 50구 형성으로서 비교적 단편에 속한 월령체 가사이나 그 사설은 4월령의 연등절(燃燈節) 관등 풍속에 치중되어 있다. 각 구를 이루는 가사의 음수율은 2.3조가 1구, 2.4조가 6구, 3.4조가 18구, 4.4조가 24구, 4.5조가 1구 등으로 다양한데, 4월령의 술회가 22구에 이르러 가사 제목을 <관등가>라 하여 전해온 그 까닭을 짐작케 한다.

[원문]

東籬菊花 차자볼가
金風이 蕭蕭하야
菊花 爛開하니
隱逸處士 노픈절개
高然히 보앗세라
秋天落月에
江風은 凄凄하고
滿山紅葉은
錦繡帳을 이릿는데
저근덧 잠을이뤄
梅竹을 꿈에보니
陽臺가 아니로되
梅花가 앞에잇고
湘江이 아니로되
班竹이 푸르럿다
취몽을 겨우깨여
欄檻을 비겨보니
엇그제 붉든丹楓
五六日 雪霜우에

觀燈歌

梅花香氣 아름답다
蒼蒼松竹은
臘雪을 띄어잇고
依依綠竹은
雪霜을 멸시하야
烈士의 後身인가
節介도 堅固하고
積雪을 쓸고
翠竹을 어로만저
歲月이 迅速함을
長歎하고
物色의 變態함은
愴然이라
외외한 岩石下에
雪風이 凄凉한데
玉樹珠簾이
處處에 걸렷스니
素淡한 雪景中에
梅香이 무르륵고
烈烈寒風에
鴻鴈聲이 凄凉하다
어느덧
雪景을 지냇구나
東風이 淡蕩하니
三春佳節 다시온다
허후 世上事 헛되도다
人生이 不得恒少年이니
아니놀고 무엇하리

觀燈歌
正月上元日에
달과노는 少年들은 踏橋하고 노니는데
우리님은 어대가고 踏橋할줄 모르는고
二月淸明日에
나무마다 春風들고 잔디잔디 속닢나니
萬物이 化樂한데 우리님 어대가고
春氣든줄 모르는고
三月三日날에

觀燈歌

江南서 나온제비 왓노라 現身하고
瀟湘江 기러기는 가노라 下直한다
梨花桃花 滿發하고 杏花芳草 흣날린다
우리님은 어대가고 花遊할줄 모르는고
四月初八日에
觀燈하려 臨高臺하니
遠近高低에 夕陽은 빗겻는데
魚龍燈 鳳鶴燈과 두루미 南星이며
鍾磬燈 仙燈북燈이며 수박燈 마눌燈과
蓮꽃속에 仙童이며 鸞鳳우희 天女로다
배燈집燈 산디燈과 影燈알燈 甁燈壁欌燈
가마燈 欄干燈과 獅子탄 체괄이며
虎狼이탄 오랑캐라 발로차 구을燈에
日月燈 발가잇고 七星燈 버럿는데
東嶺에 月上하고 곳고지 불을현다
우리님은 어대가고 觀燈할줄 모로는고
五月端午日에 남의집 少年들은
높고높게 그네매고
한번굴러 앞이높고
두번굴러 뒤히높하 鞦韆하며 노니는데
우리님은 어대가고 鞦韆할줄 모로는고

思親歌(一)
正月이라 十五日에
玩月하는 少年들아
凶豊도 보려니와
父母奉養 생각세라
身體髮膚 四大節은
부모님게 타낫스니
태산가치 노픈덕과
하해가치 기픈정을
어이하야 이즈리오
천세만세 미덧더니
蓬萊方丈 瀛洲山에
불로초와 불사약을
人力으로 어들손가
슬프다
樹欲靜而 風不止하고

觀燈歌

子欲養而 親不在라
空山落木 一抔土에
영결종천 되겟구나
一年三百 六十日에
一日事親 十二時라
陰風이 寂寞하고
消息이 永絶하니
슬프다 우리부모
上元인줄 모르시나
그달을 虛送하니
二月이라 寒食日에

[현대역]

觀燈歌
정월(正月) 상원일(上元日)에1
달과 노는 소년(少年)들은 답교(踏橋)하고2 노니는데
우리임은 어디 가고 담교(踏橋)할 줄 모르는고
이월(二月) 청명일(淸明日)에3 나무마다 춘풍(春風) 들고
잔디마다 속잎 나니 만물(萬物)이 화락(化樂)한데4
우리임은 어디 가고 춘기(春氣)든5 줄 모르는고
삼월(三月) 삼짇날(三日)날에6
강남(江南)에서7 나온 제비 왔노라 현신(現身)하고8
소상강(瀟湘江)9 기러기는 가노라 하직(下直)한다10
이화 도화(梨花桃花)11 만발(滿發)하고 행화 방초(杏花芳草)12 흩날린다
우리임은 어디 가고 화유(花遊)할13 줄 모르는고
사월(四月) 초파일(初八日)에14 관등(觀燈)하러15 임고대(臨高臺)하니16
원근 고저(遠近高低)에17 석양(夕陽)은 비꼈는데
어룡등(魚龍燈)18 봉학등(鳳鶴燈)과 두루미 남성이며19
종경등(鍾磬燈)20 선등(仙燈) 북등이며21 수박등 마늘등과
연꽃 속에 선동(仙童)이며22 난봉(鸞鳳) 위에 천녀(天女)로다23
배등 집등 산디燈과 영등(影燈)24 알燈 병등(甁燈) 벽장등(壁欌燈)25
가마燈 난간등(欄干燈)과 사자(獅子) 탄 취바리며26
호랑(虎狼)이 탄 오랑캐라 발로 차 구르는燈에
일월등(日月燈) 밝아 있고27 칠성등(七星燈) 벌려 있는데28
동령(東嶺)에 월상(月上)하고 곳곳에 불을 켠다
우리임은 어디 가고 관등(觀燈)할 줄 모르는고
오월(五月) 단오일(端午日)에29 남의 집 소년(少年)들은
높고 높게 그네 매고
한 번 굴러 앞이 높고
두 번 굴러 뒤가 높아 추천(鞦韆)하며 노니는데
우리임은 어디 가고 추천(鞦韆)할 줄 모르는고

[각주]

1) 상원(上元) : 음력 정월 보름날. 대보름날. 명절의 하나로, 이날 장수를 빌어 약밥을 먹 고, 귀밝이술을 마시며, 이를 튼튼히 하고 부스럼을 예방하는 뜻으로 부럼을 깨물고, 더 위를 팔로 다니며, 다리 밟기를 하며, 저녁에는 달맞이를 하는 등 지방에 따라 각종 세시풍속 행사가 행해져 왔다.

2) 답교(踏橋)놀이 : 다리 밟기. 그 해의 재액을 물리친다 하여 정월 보름날 밤에 다리를 밟던 일.

3) 청명(淸明) : 청명절. 24절기의 하나. 춘분(春分)과 곡우(穀雨) 사이에 있음. 양력으로 4 월 5일경에 해당하데, 만물이 맑은 양기(陽氣)가 되는 시기라고 하는 뜻임.

4) 화락(化樂) : 바라는 바는 무엇이든 이루어지게 하여 즐겁게 해줌.

5) 춘기(春氣) : 봄기운. 봄의 기운. 또는, 그 느낌.

6) 삼짇날 : 삼월 삼질. 삼월 삼짇날. 상사(上巳). 음력 3월 초사흗날.

7) 강남(江南) : ① 강의 남쪽. ② 중국의 양자강(楊子江) 이남. 흔히 남쪽의 먼 곳이라는 뜻으로 쓰임.

8) 현신(現身) :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처음으로 뵙는 것,

9) 소상강(瀟湘江) : 중국 호남성(湖南省)에 있는 동정호(洞庭湖)에 합류해서 들어가는 소수(瀟水)강과 상강(湘江)의 별칭.

10) 하직(下直) : 먼 길을 떠날 때에 웃어른께 작별을 아뢰는 것.

11) 이화도화(梨花桃花) : 배꽃과 복숭아꽃.

12) 행화방초(杏花芳草) : 살구꽃과 향기로운 꽃다운 풀.

13) 화유(花遊) : 꽃놀이.

14) 초파일 : 파일. 욕불일(浴佛日). 석가(釋迦)가 탄생한 음력 4월 8일을 이르는 말.

15) 관등(觀燈) : 등불놀이. 음력 4월 8일 밤에 등불을 달고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리는 일.

16) 임고대(臨高臺) : 높이 쌓은 대에 올라 내려다봄.

17) 원근고저(遠近高低) : 멀고 가깝고 높고 낮은 데.

18) 어룡(魚龍) : 물고기와 용.

19) 남성이 : 남생이. 수귀(水龜). 남새잇과의 한 종. 냇가나 연못가에 사는데, 거북과 비슷하지만 작음. 이에 대한 가사 원문의 표기는 '南星이'로 되어 있음. (참고 : 가사의 원문 중 속음(俗音)이나 변음(變音)의 표기, 또는 오자(誤字) 등은 가사의 현대역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그 표기의 예를 이처럼 제시해 둔다. 이하 다른 각주에 드는 낱말의 경우도 이와 같다.)

20) 종경(鍾磬) : 놋쇠로 만든 악기의 하나인 종(鍾)과 옥돌로 만들어 달아, 뿔 망치로 쳐 소리를 내는 아악기(雅樂器)를 이르는 경쇠.

21) 북등 : 가는 대오리 따위로 북과 비슷하게 만들고 백지로 바른, 촛불을 켜들고 다니는 등.

22) 선동(仙童) : 금동(金童).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아이.

23) 난봉(鸞鳳) : 난조(鸞鳥)와 봉황(鳳凰). 의좋은 친구나 화목한 부부의 비유. 또는 뛰어난 인물이나 군자의 비유. 천녀(天女) : 비천(飛天). 하늘을 날아다니며 하계(下界) 사람과 왕래하는 여자 선인(仙人). 또는 아름답고 상냥한 여자의 비유.

24) 산디 : 산대(山臺)의 변한 말. '산대놀음'의 준말. 탈을 쓰고 소매가 긴 옷을 입은 광대 가 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노래와 재담을 곁들인 가면극(假面劇). 영등(影燈) : 초롱 속에 회전하는 기구를 장치하고, 종이로 여러 모양을 오려 붙여 바람이나 불기운으로 빙빙 돌게 하여 그 그림 모양이 겉으로 나타나게 하는 등의 한 가지.

25) 벽장(壁欌) : 바람벽을 뚫어 작은 문을 내고 그 안에 물건을 넣게 된 곳.
26) 사자(獅子) : 사자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노는 민속놀이, 즉 사자놀이에 등장하는 사자. 취바리 : 산대놀이에 쓰이는 괴상한 모양의 남자의 탈. 또는 그 탈을 쓰고 춤추는 사람. 이에 대한 가사 원문의 표기는 '체괄이'로 되어 있음.
27) 일월등(日月燈) 밝아 있고 : 덕을 베푸는 '일월등명불(日月燈明佛)'을 염두한 표현구임. 일월등명불(日月燈明佛) : 하늘에 대해서는 일월, 땅에 대해서는 등과 같이 광명의 덕을 나타내는 부처.
28) 칠성등(七星燈) : 북쪽 하늘에 벌려 있는 '칠원성군(七元星君)'을 염두한 표현구임. 칠원성군(七元星君) : 북두칠성. 북두(北斗)의 일곱 성군.
29) 단오(端午) : 중오(重五). 천중절(天中節). 명절의 하나. 음력 5월 5일로, 씨름.탈춤.그네뛰기.가면극 등의 놀이를 즐기며, 여자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음.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